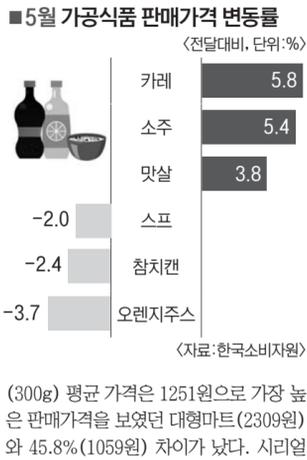


# 전통시장 두부, 대형마트 절반값에 산다

### 가공식품 30개 평균 구매가 12만5645원... 전년비 2.3% 상승 참기름·고추장 등 10개 저렴... '참가격' 사이트서 가격 비교

주요 가공식품 장바구니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2.3%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5월 가격동향'에 따르면 간장·국수·라면 등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지난해 평균 구매비용은 12만564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2820원)에 비해 2.3%(2825원) 상승했다. 전달인 4월에 비하면 1.1%(1416원) 올랐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 가운데 지난 4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카레(5.8%)·소주(5.4%)·맛살(3.8%) 등 18개였다. 특히 맛살(100g) 가격은 711원으

로 최근 3개월 연속 가격이 상승(623→659→685원)했으며, 고추장도 지난 1월 이후 상승세가 계속됐다.  
오렌지주스(-3.7%)·참치캔(-2.4%)·스프(-2.0%) 등 10개 품목은 전달보다 가격이 내렸다. 오렌지주스(100ml) 가격은 237원으로 최근 두 달 연속 가격이 하락했다.  
식품별 가격은 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마다 크기는 45.8%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전통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두부·참기름·고추장 등 10개였다. 두부



(500g·3829원), 즉석밥(210g·1098원), 콜라(1.8ℓ·2408원) 등도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을 제치고 가장 싼다.  
대형마트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품목은 오렌지주스(1ℓ·1714원), 국수(1kg·2221원), 식용유(900ml·3233원) 등 15개 품목이었다. 슈퍼마켓에서 사면 더 저렴한 품목으로는 생수(1ℓ·496원), 설탕(1kg·2131원), 어묵(300g·1842원), 치즈(200g·3848원)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생필품 가격정보가 주마다 제공되고 있는 '참가격'(price.go.kr)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여름엔 스파클링 와인이 딱 광주 롯데백, 와인박람회 60% 이상 저렴하게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21~30일 '상반기 결산 와인 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8종의 와인을 6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올 상반기 인기 상품인 '샤또 라르장떼르'를 1만 8000원에 내놓고 '빈도로 프리미티보' 2만 2000원, 스파클링 와인 '마르케스 드 모니스트를 빈티지까바' 1만원, '간지아 프리미엄 모스카토 가스티' 1만 8000원에 판매한다. 1만원 이하 초특가 와인도 소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1~5월 와인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의 증가했다. 6월 스파클링 와인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13.1%로 늘어나 와인 전체 매출 신장율 4.8% 보다 높았다.  
행사기간 동안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구매금액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이 주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와인매장 직원들이 다양한 종류의 스파클링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집돌이·집순이 홈강스족 잡아라"

### 롯데마트, 26일까지 '미리 준비하는 홈강스' 행사

집안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족'(홈+트레이닝)과 식물을 가꾸며 집을 꾸미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 경향도 바뀌고 있다.  
1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홈트레이닝' 용품의 매출 증가율은 2017년 9.0%에 이어 2018년 8.1%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식물로 집안 공기 정화 효과를 보려는 고객이 늘면서 '홈가드닝' 용품 매출 증가율은 2017년 17.3%에서 2018년 37.7%로 경종 뛰었다. 또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홈강스'에 활용되는 필수 상품군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지역 롯데마트는 오는 26일까지 실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놀이 용품과 함께 여름용 주방기기, 홈트레

닝 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미리 준비하는 홈강스' 행사를 펼친다.  
'보로로·핑크퐁 에어쿠션폴(150x115x38cm)은 5만4900원에, 실리콘 아이스크림틀과 빙수기는 규격에 따라 4900원에서 1만4900원에 판매한다. '남양키친플라워에어프라이어'(3.2ℓ·5만9000원), '렉스파 조립식 덤벨 세트'(1만9000원), '렉스파 접이식 식탁 벤치'(4만9000원) 등 '홈족'들을 위한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상진 롯데마트 마케팅 부문장은 "최근 집이 미세먼지를 피해 시원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관련 상품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가정간편식 '밀리언셀러' 시대

### 이마트 피코크 한우곰탕 등 8종 인기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피코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6년 간 상품 8종 누계 판매량이 100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누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제품은 271만여 개가 팔린 '피코크 한우곰탕(500g·사진)'이었다.  
누계 판매량 2위는 198만개가 팔린 '피코크 육개장(500g)' 이었고, '피코크 새우볶음밥(840g)', '피코크 차돌박이 된장찌개(500g)', '피코크 초마점빵(1240g)' 등이 3~5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피코크 소고기미역국(500g)', '피코크 녹두삼계탕(900g)', '피코크 소고기무국(500g)'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올해 1~5월 육개장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올랐고, 녹두삼계탕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7.3% 증



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가정식의 인기가 늘고 있다"며 "피코크가 출시한 2013년 340억 원에 불과하던 피코크 연 매출은 지난해 2490억 원으로 5년 새 7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비싸도 유기농 좋아...광주 이마트 매출 1.8% ↑

유기농 식품 인기가 꾸준히 오르면서 지역 유통업체가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19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5월 유기농 제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신선식품은 1.5%, 가공식품 2.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이마트 유기농 식품 매출 증가율(0.5%) 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마트 측은 "광주 전남지역에 신선 식품 주요산지가 많아 유기농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기농 과일의 경우 일반 과일에 비해 15~20% 정도 비싸지만 껍질까지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는 게 이마트 관계자 설명이다.  
인기 품목으로는 무농약 쌀과 영양곡, 유기농 쌀, '디톡스'(해독) 푸드 등이 있다. 최근에는 유기농 당근쥬스·제주감귤 쥬스·무주 사과 쥬스·아로니아 쥬스 등이 호응을 받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리(RE) 플리마켓' 서 청년기업 상품 구매하세요

광주신세계 내달 1일~14일  
오는 7월1~14일 2주 동안 광주신세계 1층에서 청년창업자와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광주리(RE) 플리마켓'이 열린다. (주)광주신세계와 광주시 서구, (사)창업

지원네트워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창업과 사회적기업 창업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서구청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대석 서구청장, 최민도 (주)광주신세계 대표, 허상용 (사)창업지원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광주리 플리마켓' 등 정기적인 행사를 열며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서구는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고 광주신세계는 물품 홍보·전시·판매 할 수 있도록 협력

계획이다. 창업지원네트워크는 창업자들의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며 긴밀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는 "우리지역 우수 상품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청년기업 상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